

#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전략 · 사례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 1월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도지사 · 출연기관장 등 200여명과 열띤 토론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도지사를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새로운 전북자치도정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가적 업무 역량 강화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공

부프로그램인 '새로운 전북포럼'을 가졌다. 지난해까지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70여명이 참여해 이뤄졌던 포럼을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그림을 완성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도민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에서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AI) 도입 전략 및 사례 연구를 위한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올해부터는 아침 공부모임을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에 참여해 미래 발전의 흐름을 직접 보고 느

끼고 왔다"며 "우리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첫 포럼 주제를 '인공지능'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초빙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태원 수석연구원은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공공부문에 생성형AI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발명은 지능화 혁명을 가져왔다"고, "AI서비스는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며,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챗GPT도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사무업무 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실현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1월 새로운 전북포럼이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전북자치도, 힘찬 발걸음 시작

### 23일, RE100확대 및 에너지 솔루션(ES) 촉진방안 마련 포럼

지난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을 새롭고 특별한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에너지 산업과 ICT산업의 연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북의 에너지 솔루션(ES)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분야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도내 에너지산업 관

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학계, 도·시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포럼 주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강상규 교수가 '수소에너지와 미래 디지털혁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선 센터장이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1부 포럼에 이어 2부에서는 ES산업의 육성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혁신활동 추진체계인 RE100 에너지 솔루션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청정에너지를 확

대하고 RE100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수소·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1위와 설비용량은 전국 2위, 태양광 잠재력은 전국 3위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실증 등을 위한 공공기관들이 집약해 있어 에너지산업의 우수한 잠재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국가적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는 데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ES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내·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과 학계 등과 힘을 모아 공동협력 혁신활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산·학·연이 협력하여 ES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국가적 전략을 만들어 내는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5월에는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2024년도 첨단·융합 기반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제4차(2024~2028) 전북 뿌리산업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전북 뿌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4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로서 위원장인 경제부지사를 포함해 산학연관 15명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되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이번 4차 종합계획에는 2024년~2028년 5년 간 첨단 융합 기반 전북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 비전 하에 △첨단산업으로 전환 촉진 △전북 뿌리산업 일자리 안정화

△전북 뿌리기업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3대 전략 15개 과제로 추진된다. 종합계획 실행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반 6대 및 차세대 핵심뿌리기술을 확보하고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으로 인력수급을 구축해,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뿌리기업에 자생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중훈 지차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지원사업 접수

### 물환경 교육, 체험부스 운영, 주민실천사업 등 공모 2월 6일까지 접수... 3월 단체 선정, 4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단체의 물환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사업'은 민간 주도의 물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강·만경강 수계 대상 사업 1개소에 2,300만원, 섬진강 수계 대상 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동진강 수계 대상 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도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나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단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심사, 현지점검 및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예산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onbuk.go.kr)의 공고/고시에 게시된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북특별자치도청 10층 물통합관리과로 오후 6시까지 방문제출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3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물관리 실천사업을 발굴해 물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3개 단체를 선정해 수생식물 식재와 정화활동을 진행해 도내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물환경 교육과 홍보부스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수질보전 활동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